

흑색변을 주소로 내원한 위의 전이성 악성 흑색종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동희 · 이오영 · 이항락 · 윤병철 · 최호순 · 함준수 · 이동후 · 이민호

악성 흑색종은 소화관으로 전이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 중에 하나이다. 주로 전이되는 부위는 소장이 제일 많고 대장, 위, 식도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검에 의하지 않은, 사망전에 임상적으로 위전이가 진단된 예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흑색변을 주소로 내원한 전이성 악성 흑색종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70세 여자가 내원 2주전부터 지속된 흑색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20여년전 좌측 다리에 악성 흑색종으로 광범위국소절제술 시행 받았으며, 2005년 5월에 악성 흑색종 재발로 좌측 하지 절단술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0.8 g/dL, 백혈구 6,900/mm<sup>3</sup>, 혈소판 208,000/mL였다. 위내시경 검사상 위의 하체부와 중체부에 검은 가뢰가 덮인 작은 점상의 점막 병변이 다수 산재되어 관찰되었고, 중체부 대만측에 약 3mm 크기의 제1형 용종과 동반된 병변이 관찰되었다. 십이지장의 구부의 전벽측에 중심부가얇게 함몰되고 검은 가뢰가 덮힌 궤양이 관찰되었다. 위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흑색 색소와 핵이 뚜렷한 다형태적(pleomorphic) 암세포가 점막에 전반적으로 침윤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어 악성흑색종의 위장 내 전이를 확진하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에 간과 폐에 다발성 결절이 관찰되었고, 좌측 서혜부 임파선 종대가 관찰되었다. 그 후 환자 항암요법을 권유 받았으나 거절하여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외래 통해 관찰중에 있다.

다발성 간 전이를 동반한 위의 악성 상피성 glomus 종양 1 예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소화기내과<sup>1</sup>, 혈액종양내과<sup>2</sup>

\*오성남<sup>1</sup> · 오상철<sup>2</sup> · 최도원<sup>1</sup> · 김연호<sup>1</sup> · 한우식<sup>1</sup> · 박종재<sup>1</sup> · 김재선<sup>1</sup> · 박영태<sup>1</sup> · 연종은<sup>1</sup> · 변관수<sup>1</sup>

**서론 :** Glomus 종양은 동맥 내 혈류량을 조절하는 neuromyoarterial receptor인 glomus body에서 기인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이다. 대개의 경우 피부나 피하조직에서 발생하는 단일 양성 종양의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드물게 내부장기에도 발생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위장관의 glomus 종양은 대부분 단일 양성 종양이었는데, 본 예와 같이 간 전이를 보이는 위장관 glomus 악성 종양은 문헌 검색 상 보고 예가 없어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중례 :** 평소 특이병력 없던 남자 63세 환자가 5 개월전부터 지속된 상복부 및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생체징후는 안정되어 있었으나 만성 병색이었고, 결막은 창백하였다. 간이 2 횡지로 만져졌고,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었다. 시행한 검사상 Hgb 10.2g/dL, 백혈구 13400/uL, 혈소판 438000/uL, AST 41 IU/L, ALT 25 IU/L, Total Bil 0.32 mg/dL, Protein 6.6 g/dL, Albumin 2.8 g/dL, CEA 1.6ng/mL, CA 19-9 2.8g/mL 의 소견을 보였다. 상복부 위장관 내시경 소견상 커다란 궤양형 병소가 위체하부의 소만부에서 체상부까지 침윤되어 있었고 분문부를 침범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상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위의 저부와 체부에 침윤성 위벽 비후 및 다수의 저음영성 간종괴 소견을 보였고, 대동맥주위로 광범위한 림프절종대가 관찰되었다. 조직 생검상 위점막은 round cell 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고, 이 종양세포의 핵은 크고 수포성이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은cyto-keratin, CAM5.2, CD56, PAS, CD34, C-kit, desmin등에 음성소견을 보인 반면, vinmetin, smooth muscle actin, caldesmon, synaptophysin, type IV collagen 에 양성 반응을 보여, 다발성 간 전이 및 림프절종대를 동반한 악성 상피성 glomus 종양을 진단할 수 있었다. 환자는 첫번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후 경과 관찰중 궤양내 동맥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론 :** 위의 궤양형 병소에서 조직검사상 위장관 glomus 악성 종양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간전이를 동반했던 환자로서, 이를 체험 하였기에 보고 한다.